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탁월한 사상과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향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세계진보적인사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한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회세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슬로벤스코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인 광명성절

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선의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시었다.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은 김정일동지를 회세의 위인으로 끝없이 경모하고있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복리복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가장 절충한 위인이시며 김정일시대는 위대한

승리와 창조적 시대이다. 민주공공산당 총비서와 민주공공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조선인민을 주체위업의 한길로 향도하시었다고 하면서 그이는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준 저명한 정치가, 사상리론가이시라고 격찬하였다. 나이지리아인민진보당 전국 위원장은 세계정치사에 류례없는 선군정치로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의 불멸의 업적을 진보적인류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영공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봉부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체조건을 변형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일떠세우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참다운 인민적령도자의 위대한 귀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 칭송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을 강그리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널리 소개 선전하고있다. 에파도르 김정일도서관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었다. 소박하고 소탈하며 인민적 품성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자신을 언제나 인민의 아들로 여기시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시었다. 또한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쉬임없는 헌신적노력을 기울이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는 조선의 김정일각하는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를 일으킨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선생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신 데서 잘 알수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무슨 일을 한 가지 하여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부터 물으시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주시것은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에서 최절정을 이루고 있다. 네팔인터넷잡지 《네팔 투데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없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인민적품성을 지니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늘 수순한 잠바 옷차림으로 케기밭도 달게 드시면서 인민들을 찾아가곤 하시었다. 또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으로 력사의 모진 광풍을 헤치시며 조선을 참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이시었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

의강국건설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민주공공신문 《라브니르》는 김정일령도자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 인민이 바라던바도 들어도 꽃을 피우야 한다는것이 바로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었고 의지였다. 인민을 품에 안아 친어버이정도로 보살펴주시는것은 바로 사랑의 화신인 김정일령도자의 정사였다고 찬양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빠트리오르 모스크바》는 이렇게 전하였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펼치신 김정일령도자의 정치는 사랑의 정치이다. 그이께서는 생신날에조차 인민을 찾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조선인민이 김정일령도자를 《우리의 장군》, 《우리의 운명》이시라고 칭송하며 충정다해 따른것은 그이께서 오직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참다운 어버이이시였기 때문이다. 참다운 인민적령도자의 위대한 귀감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세계진보적인사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절충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며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더 높이 펼쳐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마자르로동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류는 2018년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조

선로동당의 올바른 정책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제안들과 조선의 자주정치는 세계인민들속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은 사회주의조선이 세계정치무대에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권위와 위상, 강요한 조선인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며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길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무궁장대할 태양이 펼쳐져있으며 정의와 항심을 바라는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제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하시으로써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십년 지어 100년이 걸려야 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조선인민은 만리마속도로 내달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웠으며 급속공업, 기계제작공업, 농업에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진행될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을 기어이 완성해나갈려는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위력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정의로운 인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되었다. 2019년에도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로씨야 인사들 강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정당한 립장을 로씨야인사들이 적극 지지하고있다. 로씨야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경위원회 제1비서 그로모브와 로씨야연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하바롭스크변경위원회 1비서 켈츠크는 5일 련명으로 된 련대성원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해에 진행하신 북남 및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주주도의 정당성을 실증해주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울라지보프스키시위원회 제1비서 썬쓰르브는 2일 담화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물론 진보적인류에

게 큰 감명을 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깊이 연구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실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그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은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34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

제34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20일에 개막되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기초과학, 전자자

동화, 정보기술, 농업 및 생물공학, 의로기구 및 제약분과 등 12개 분과로 나누어 과학기술성과와 착상 발표회 및 전시회, 단위별 전시경연, 새 기술교류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

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기초과학부문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룩한 30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와 80여건의 과학 착상을 축전에 출품하였다. 운수기계대학, 경공업기계공학부, 평양기계기술교류사에서도 교육도시인쇄공장, 함흥목제품공장 등 여러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 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하였다. 본사기자

평양기계종합대학에서

평양기계종합대학에서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지난 1년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과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이 절세위인들의 사상리론과 업적, 위대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도서 8종과 과학소논문 100여건을 집필하였다. 기초과학부를 비롯한 대학의 학부들에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

재들을 키워내는데 도움이 되는 《공기압 및 유압공학》, 《별렬로보트설계와 해석》 등 100여건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내놓았다. 대학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원로, 설비들을 극대화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8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도 이룩하였다. 기계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기계설비현대화의 발전추세에 맞는 고속화된 공

기분사식직기를 새롭게 완성하였으며 자원개발기계공학부에서는 산불진화용물산로기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다. 운수기계대학, 경공업기계공학부, 평양기계기술교류사에서도 교육도시인쇄공장, 함흥목제품공장 등 여러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 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자주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은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서 항시적으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립장이다.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주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나라의 통일을 가장 열렬히 바라는것도, 통일조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겨레이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두루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

칙을 견지해나간다면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을 위해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다 아는것처럼 지난 시기에 북과 남사이에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훌륭한 소중함의 합의가 적지 않게 마련되었다. 하지만 북과 남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들이 외세의 간섭과 방해

책등으로 인해 옹당한 결실을 이루지 못했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북남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그에 추종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북과 남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난해 북과 남은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두렵지 않으며 북

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히 풀어내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방해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단합된 힘으로 올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분노한 광주시민들

《자유한국당》 규탄투쟁에 총결기, 광주범시민운동본부 결성

남조선의 《CBS》 방송에 의한 광주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투쟁에 총결기해나갔다. 5.18광주봉기를 《폭동》으로 회색자들을 《종북파파가 만든 괴물》로 매도한 《자유한국당》의 처사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징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5.18광주봉기를 모독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와 전두환 등이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그림을 그린 대형현수막을 머리위로 들고 갈기갈기 찢으며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어 시위행진이 있었다.

5.18광주봉기가 민주항쟁이라는것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민주세력, 적폐세력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투쟁으로 《자유한국당》을 징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5.18광주봉기를 모독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와 전두환 등이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그림을 그린 대형현수막을 머리위로 들고 갈기갈기 찢으며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어 시위행진이 있었다.

시위에 참가한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은 력사의식이 없는 그런자들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명하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한 력사전문가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사태는 참담하였다. 녀학생 수백명이 금남로에서 군인들의 총에 맞아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지만원은 항쟁에 참가하였던 나의 아버지를 《빨갱이》로,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을 폭로한 사람들을 《북의 간첩》으로 몰았다고 그는 격

분을 표시하였다. 한 광주시민은 《자유한국당》의 5.18만행은 명백하게 력사외곡이고 바로잡아야 하기때문에 거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제헌된 1980년 5월 광주》, 《광주시민들에게 5월 18일 광주를 민주주의 그자체》, 《5.18에 희생된 광주시민 생각하면 눈물 흘러》 등으로 이날 광주시민들의 투쟁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언론들은 이날 광주 금남로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련상케 하였다. 5.18민주유공자유족

회의 어머니들도 당시 5.18 민주화운동때처럼 거리의 한켠에서 찰밥을 등글게 말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광주시민들은 서로 손을 잡고 《고맙다》, 《인사를 나누었다》, 주먹밥을 손에 든 광주시민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진압군에 대항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웠던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모습과 같았다고 보도하였다. 23일에는 서울의 문화관광장이나 《국회》 건물앞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 집회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본사기자



강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함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